

추석 경기 온도차... 전통시장 '활기', 백화점·마트 '한산'

르포

명절 앞둔 재래시장·백화점·마트

경제 불황과 정치적 이슈 부각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추석 경기도 온도차가 분명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전통시장(재래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예전보다 손님도 줄고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한숨 소리가 이어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모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재래시장은 명절 상 차리기 준비에 나선 손님들로 북적였다. 시장 곳곳에는 생선과 전 등 명절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이 진한 냄새를 풍겼다. 상인들은 끊임없이 손을 뻗는 방문객 덕에 금세 동난 진열대를 채워 넣고 있었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상반된 상황이 연출됐다. 소비자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다. 배 하나를 집어 들고 한참 동안 고민하는 주부와 이를 바라보며 구매를 종용하는 판매원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 추석 앞둔 전통시장 '복적'

추석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대문에 있는 경동시장 골목에선 흥정을 주고받는 상인과 방문객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전날 한반도를 통과했던 태풍 '링링'도 명절 준비를 하러 나온 시민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할머니는 물건을



지난 8일 오후 방문한 경동시장. 명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 제수 용품을 장만하기 위한 사람들로 발디딤들이 없는 모습이다. /김상길 수습기자

전통시장 상인, 평균 수입 3배 이상 명절전에 하루 방문객 4만명까지

백화점 '설날보다 실적 저조한 편' 소비자 이전보다 가성비 더 중요시

가득 채운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명절마다 전통시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가격 경쟁력'을 꼽았다. 10년 이상 경동시장에서 명절 준비를 해왔다는 김현용(48)씨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과 필요한 용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복적거리"는 모습은 명절 전통시장의 운치"라며 "다소 혼잡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느껴진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명절 특수로 인해 제사용품과 관련 없는 인근 상인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



지난 8일 오후 방문한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방문객들이 진열된 선물세트 살피고 있다. /이인영 수습기자

었다. 시장 내 대부분 가게는 명절마다 수입이 솟출하다며 입을 모았다.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매년 명절 대목에는 상인들의 평균 수입이 3배 이상 늘어난다"며 "하루 방문객이 7000여 명 정도에서 명절 전에는 3만~4만명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 대형마트·백화점, 명절 특수 '글썸'
다양한 냉장육 선물세트가 진열된 정육 판매장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상봉점 모두 가장 많은 사람이 붐볐다. 하지만 기자가 10분가량 머물렀음에도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건을 집어 들다가도 가격표를 확인하고 내려놓기도 했다. 망우동에서 온 한 주부는 "시대에 가기 전에 선물세트를 사려고 왔다. 사긴 사야 하는데 가격이 만만찮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육 코너의 한 직원은 "한우 선물세트, 갈비 선물세트 등 10만원 이상 호가하는 프리미엄 세트보다는 저렴하게 나온 행

사 상품이나 미국산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과일코너 역시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배를 집어 들고 한참 동안 고민하는 주부의 얼굴에서 가격과 상태 등을 철저히 따져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과 차이를 묻자 "정확한 매출을 공개할 순 없지만 많이 떨어졌다. 경기가 경기이지 않나"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백화점도 대다수 매장이 추석 특수를 맞아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 특별 할인 상품도 즐비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명절 전이라 선물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지만 올 초 설보다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백화점 선물세트 코너에서도 "예전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롯데백화점 본점 선물세트 판매 담당

직원은 "명절 때마다 100개를 구매했던 고객이 이번엔 40개만 사는 등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 '추석 특수'는 옛말...

편의점 브랜드 CU의 서울 종로옥인점주는 추석을 앞두고 외려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가게를 쉬고 싶었지만 본사의 조건에 미치지 못해 '올며겨자 먹기'로 문을 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일평균 매출보다 추석 당일 매출이 30% 더 적어야 한다는 본사 조건에 맞아야 할 수 있다. 그는 '추석 특수'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작년만 해도 선물세트를 갖다 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이번에는 아예 안 갖다 놓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김해정(55)씨도 추석에 장사가 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이다 회사라 추석에 손님이 더 없다"며 "그래도 새벽 6시부터 일해야 하는데 정작 나는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명절도 시락이 나왔는데 비싸서 잘 팔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들도 추석을 즐기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종로구 '푸른할인마트'에서 일하는 유승희(50)씨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주변 관공서에서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며 "동네 주민들도 경기가 어려워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길·김수지·송태하·이인영 수습기자
sayk6110@metroseoul.co.kr

취약계층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은 고소득층 노인들에게 돌아가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연 3000억 조세, 상위 30%가 90% 가져 상위 10% 위한 조세지출액만 전체 37%

취약계층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91%가 금융소득 상위 30% 노인층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해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상위 10%를 위한 조세지출액만 전체의 37%에 달했다.

정부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에 달한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다. 이는 2013~2017년 5개년 기준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금융소득 10분위마다 200명씩 무작위 추출해 총 1만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

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명으로 계좌수는 904만개에 달한다. 조세지출 규모만 지난해 기준 연 3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은 고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문제를 지적하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포함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 제외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7600만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0.83%,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 가입자가 3.68% 줄고, 조세지출액은 3.52% 감소한다.

정부는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가입자는 2.38%, 조세지출액은 3.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는 가입자가 8.71%, 조세지출액이 7.57% 감소할 전망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연내 상장예정 핀테크 업체, 시선 '한몸에'

핀테크 시장 지난해 1000조 유입 아톤·페이레터 등 IPO 추진 중

올해 웹케시·세틀뱅크에 이어 아톤·페이레터 등 핀테크업체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핀테크 국내 1호 상장기업'이란 타이틀을 내 건 웹케시가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 18곳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핀테크주가 하반기에도 높은 수익률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핀테크주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핀테크업체 IPO...관심 '쑏'

핀테크 보안 솔루션업체인 아톤은 지난 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톤은 오는 10월 상장이 예정돼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지난 8월 중순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모 일정을 연기했다.

아톤 IR 담당자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감리대상으로 지정받았는데 감리를 잘 통과해 오히려 회계투명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핀테크 분야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며,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보안솔루션

이 고이 분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톤은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주관사로 IPO를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내달 7~8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89만 7188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3만~4만 3000원이다.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업체인 페이레터도 빠르면 연내 코스닥 시장 IPO를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따르면 페이레터는 지난달 2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다.

2001년 설립된 페이레터는 게임 및 콘텐츠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로,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결제 시스템을 독점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핀테크 분야 빅데이터기업인 쿠콘도 최근 하나금융투자를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 7월 IP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웹케시의 계열사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핀테크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

올해 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핀테크 플랫폼 기업인 웹케시는 공모가가 2만 6000원이었는데 지난 8일 증가 기준 4만 5850원으로 현재 76.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증시 폭락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6월 18일 기준 주가는 공모가 대비 158%나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반해 세틀뱅크는 간편현금결제 시장의 최강자임에도 수요예측에서 흥행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4만 9000원)을 초과해 5만 5000원으로 결정된 탓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기준 주가는 3만 9500원이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모바일 전자결제 기준) 규모는 2013년 약 290조원에서 지난해 약 1000조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